

색향미 한마음 차명상

최근 차인(茶人)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차 마시는 일이 그야말로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가 되고 있다. 하지만 차에 대한 관심이 건강이나 취미활동이라는 측면에 더 치중된 탓인지, '선다일미(禪茶一味)'로 대표되는 '차 수행'은 그리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차란 속에 달이 뜨네>라는 책과 남양주 봉인사의 '차 수행 강좌' 등을 통해 차 수행법을 보급하고 있는 지운 스님에게, 차 수행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어본다.

지운 스님의 차 수행법

▶ 차 수행은 왜 필요한가?

"차를 마실 때 단순히 차 마시는 행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차와 차맛 그리고 이를 헤아리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살피서 어리석음과 욕심, 성냄으로 가득 차 있던 자신의 삶을 지혜와 보시, 자비의 삶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배워 익힌다면 이는 훌륭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16일 봉인사 차 수행강좌에서 만난 지운 스님은 "요즘 차가 당뇨와 암 등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며 "물론 치유의 효과는 있겠지만, 수행이 병행될 때 비로소 차를 마시는 그대로 생명살림이 된다"고 말한다. 즉 차를 마신다는 행위와 맛에 대한 집중은 몸과 마음을 가볍고 편안하게 하고 딱힌 곳을 소통시킴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소한 일로 언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자신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감정을 억제할 수 있고 자신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차맛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차맛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생

활 속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 어떻게 하나?

차 마시는 것을 수행으로 삼는 것은, 혀와 맛이 만나는 세계를 여실히 알아차림으로써 차맛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일어나

색 맑고 투명한 마음 떠올리기

향 차향기로 오염된 몸 정화

미 맛 생기고 사라짐 깨닫기

는 현상을 놓치지 않게 되는 이치를 바탕으로 한다. 지운 스님의 차 명상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시키고 말과 생각을 떠나 선(禪)의 상태로 들어가는 '색향미(色香味) 한 마음(-心)차 명상'으로 시작된다.

우선 차를 마시기 전에 찻물의 색깔을 주시한다. 맑고 투명한 차의 빛깔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맑고 투명하다고 명상한다. 찻물을 보며 먼저 작은 연꽃을 연상한 후 니아



지난 1월 16일 남양주 봉인사에서 만난 지운 스님(맨 왼쪽)은 "차맛의 본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곧 모든 존재의 본성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사진=백재환 기자

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 향기를 투과시킨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에서 나는 담배 냄새, 술 냄새, 음식냄새 등을 정화한다.

그 다음은 차 맛의 변화를 주시하는 단계다. 이는 차 맛의 처음과 중간, 끝을 관찰하는 것으로 차맛이 생기는 순간순간 맛의 사라짐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리하며 차 맛의 고유한 어떤 실체도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색향미의 차 성품을 통해 진흙에서 피는 연꽃처럼 마음을 정화하여 깨어나게 하는 것이 '한마음차 수행법'의 시작이다.
여수경 기자 snoopy@buddhapia.com

Q & A



▲차맛을 알아차리기 위해 적은 양을 입에 넣어 혀로 돌려가면서 맛보는 것은 어떻게 하나?

-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초로 느끼는 맛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맛이 변화하더라도 그 속에서 최초로 느낀 맛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차의 첫맛을 안다는 것은 생각으로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느낌으로 아는 것입니까?

- 차의 첫맛의 감지는 차맛을 보고자하는 의식을 한 곳에 집중시킨 정념(正念)으로 합니다. 정념은 빈 마음으로 일체 현상을 여실히 지켜보는 정신작용을 말합니다. 이때 비로소 맛

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나아가 일체현상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으로 하면 자기 생각 따라 차맛을 느끼므로 관념적입니다.

▲차맛의 본성을 깨달으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 차맛을 싫다고 하여 성내는 것은 차맛을 자아(自我)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맛의 본성을 깨달으면 이러한 것이 모두 사라져 차맛이라는 울가미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연히 차맛에 집착해 일어나는 괴로움에서도 벗어납니다. 때문에 차맛의 본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곧 모든 존재의 본성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를 마시는 양은 어느 정도가 좋습니까?

- 몸 상태, 그때 분위기, 기분, 상황에 따라 마시는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의 양이 아니라 맛에 대한 요점을 잡아서 마시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차를 마실 경우, 자기가 말을 하고 있을 때는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차를 마시고, 맛을 느낄 때에는 맛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주시할 수 있는 관찰입니다.

하동 차축제 세계 행사로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올해부터 세계적인 문화, 관광축제로 거듭난다.

하동녹차축제추진위는 지난 1월 14일 하동군청에서 심의회를 열고 일본이나 중국 등의 차관계자 및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광객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며 축제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축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또 군민과 전국의 차 관련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차 축제의 성격에 맞는 단위행사를 선정,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차 문화 축제로 육성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열리는 '제9회 하동야생차 문화 축제'는 오는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차 시배지 일원과 진교면 찻사발도요지에서 개최키로 하고 예산규모는 3억3300만원으로 확정했다.

지난 2000년부터 문화관광부 지정문화관광축제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축제로 평가받고 있는 '하동야생차 문화축제'는 그동안 녹차 시배지의 의미를 기리는 기념 제례, 햇차 무료 시음회, 찻잎 따기와 차 만들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매년 15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기획단 구성
외국 관광객 유치
힘 쏟기로

모집합니다

'티월드 페스티벌' 참가 모집



국제차문화대전 조직위원회는 오는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2004 티월드 페스티벌"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다양한 기능성 푸전차를 생산하는 업체나 차 관련 식음료·생활용품 개발업체, 차 재배농가, 다기 및 각종 차생활용품 제조업체, 단체 및 동호회 및 교육기관 등이면 참가 가능하다. (02)6000-8000

집한다. 3월 9일 개강 예정인 다도학과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차문화사와 제다학, 다구학, 차식물학, 사찰다도법, 차평평화 등을 배우게 된다. 지원자격은 다도로 심신수행과 불교포교를 희망하는 자로 입학원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반명판 사진 3매를 제출해야 한다. (02)732-1206

예지원 다도반 수강생 모집

(사)예지원이 3월 4일부터 개강하는 다도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3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02)2253-2211-2

티테라피 수강생 모집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원(www.snkd.com)은 차를 통해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티 테라피(Tea Therapy)' 지도자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업은 차와 명상, 아름다운 차 공간 연출, 차를 이용한 요리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2월 4일 개강하는 기초과정은 12주간, 5월 개강하는 심화과정은 15주간 진행되며 수강료는 각각 48만원, 60만원. (02)710-9767

다도대학원 수강생 모집

한국차인연합회 부설 한국다도대학원이 제1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응시 자격은 차 생활 경력 5년 이상으로 차인연합회 단위차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원서 교부는 2월 중순까지이며 입학식 원서, 다신서약서, 추천장 각 1통씩과 사진(반명판) 3매를 제출해야 한다. (02)734-5866

동산불교대 다도학과 모집

동산불교대학에서는 불교 다인양성을 위한 다도학과 수강생을 모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천한 사찰로서 진묵대사님 어머니의 묘소와 더불어 진묵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명의 능체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망해사·홍복사·봉서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흔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점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 (063)544-0416 (사전에 필요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하루 일천명의 점심공양 가능(무료)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모암 대중일통

(출강·통신) 2004학년도 제13기 법사양성을 위한

법사학인 신입 수강생 모집

불교지도자로서 위의를 갖추고
섭화중생하며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이 충만한
법사(法師)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12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법사활동을 지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2004학년도 제13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구 특 전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 품수와 법사법위증을 수여함
- 사찰·포교원 개원 및 등록시 적극 지원함
- 출가 득도시 수행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교도소·군법당 등에 포교활동을 적극 추천함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1. 모집과정: 법사과정·대법사과정
2. 모집학반: ① 출강반 ② 통신반
3.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대학 소정양식) 1부
• 사진 2매 • 주민등록초본 1부
5. 교육기간: 법사과정=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대법사과정=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6. 교육장소: ① 서울 본 대학 ② 부산 학습 도량
7. 원서 교부 및 접수: 2004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8.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대학 교무처(우편 팩스 접수가능)
* 전학문의 하시면 모집 요강과 원서를 보내 드립니다.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견지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

FAX (02)737-5305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